

# 경남 지역 여성과 남성의 가족 가치와 가족 복지 욕구

권 희 경(창원대학교 교수)

본 연구는 경남 지역의 가족 가치와 욕구를 읽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가족정책의 기반을 모색하고자 하였다. 가족 가치관 및 가족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포괄적인 가족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경상남도 가족의 실태를 측정함으로써 정책수요를 파악하고, 경상남도 가족정책의 방향정립과 구체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. 이 조사를 통해 가족 실태를 파악하고 한계를 분석함으로써 앞으로의 본격적인 가족실태 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자 하였다. 경상남도 가족의 실태와 가족가치관, 가족정책 및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.

최대한 대표성 있는 표본을 모집하기 위하여 지리적 위치와 인구 수, 농업인구 비율 및 65세 이상 고령 인구를 지역 선정의 기준으로 삼았다. 시 지역은 인구가 많으며 노인인구가 많고 농업인구가 적은 곳을 선정하였고, 군 지역은 농업인구 비율과 고령화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. 이에 따라 서부 지역의 시 단위는 진주를 선정하였으며, 군 단위에서는 산청을 선정하였다. 동부 지역의 시 단위에서는 마산을 선정하였으며, 군 단위에서는 창녕을 선정하였다. 2008년 4월 14일부터 5월 10일까지 총 1200부를 배부하여 회수된 1080부 중 응답이 부실한 경우를 제외한 1068부를 분석하였다.

응답자의 개인적 특성과 가족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, 기혼자 중 외국 출신 배우자와 결혼한 비율이 7.8%였으며, 절반가량(49.8%)이 2명의 자녀를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. 가족의 동거 형태는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이 가장 많았으며(57.8%), 자녀가 없는 부부 세대(22.4%), 한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(6.1%)의 순이었다. 가족 월소득은 200만원대(27.8%), 100만원대(27.1%), 300만원대(18.4%)의 순이었다. 가족 생활에 있어서는 가족이 비교적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, 부부 관계 역시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. 출산과 관련하여서는 정부의 지원이 있을 경우 더 출산할 의향이 있는 경우가 응답자의 20% 이상으로 나타나 출산 장려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.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가 약 15%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보살피는 사람은 배우자(26.8%), 어머니(15.6%), 며느리(15.1%), 아들(11.2%), 딸(10.6%)로 나타나, 돌봄 노동의 책임을 지는 사람은 주로 여성으로 나타났다.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인 부담(44.4%)과 정신적 스트레스(12.4%)라고 응답하였다. 가족에 대한 가치관은 비교적 보수적인 동시에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.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인지도는 아직 높지 않으며,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프로그램으로는 자녀 문제 상담 및 돌봄 서비스, 다양한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, 부모 교육, 경제 교육 순으로 나타났다.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과 경상남도의 가족 정책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.